

한국전력기술(주) 안승규 사장



[프로필] ≡D

안승규

- 1949년 출생
- 1971년 고려대 기계공학과
- 2009년 한양대 공학대학원 기계 및 산업공학과(석사)
- 1996년 현대건설 태국 현장소장
- 2005년 현대건설 플랜트사업본부장(전무)
- 2007년 현대건설 플랜트사업담당 부사장
- 2009년 현대엔지니어링 부회장
- 2009년 한국전력기술 대표이사 사장(現)

세계 5대 전력 EPC 그룹 도약, 2020년 매출 5조원 달성.

프런티어 정신이 돋보이는 비전이다. '열정'과 '긍정'이란 키워드에 기반을 둔 'Quantum Jump'를 통해 세계 전력플랜트 분야의 미래가치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과감한 승부수를 던진 한국전력기술(주).

그동안 국내 발전소의 독점적 수주라는 소극적인 성장전략을 탈피,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원전설계기술을 토대로 구매와 건설까지 아우르는 글로벌시장을 석권하겠다는 야망이다.

한국전력기술 CEO 부임 전, 35년 가까이 현대건설에서 해외시장을 누비며 다양한 경험과 감각을 쌓으며, 글로벌 시장의 변화를 읽어 내는 탁월한 감각과 업무 추진력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안승규 사장. 그는 대내외에 천명한 미래비전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오롯이 내비쳤다. 전사적인 열정으로 펼쳐지고 있는 한국전력기술의 현재와 미래비전을 안승규 사장을 통해 들어보았다.

'기술'과 '사람' 한국전력기술의 최고 경쟁력 EPC 및 해외사업 성공은 한국전력기술의 미래발전 Core Key '해외 일괄서비스 제공역량 목표 달성에 올인'

글로벌 전략인 EPC그룹 선언 배경 및 전망

현재의 기업환경은 국내 전력시장의 한계와 공기업 경영 효율화 압력이 거세지면서 기업입장에서 독자적인 경쟁력 강화와 생존전략 마련이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때문에 한국전력기술의 신임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무엇보다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마련에 고민

을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 해외시장 개척

과 EPC사업 추진이 돌파구라는 결

론에 이르렀고, 회사 임직원

들과의 면밀한 분석과 논

의과정을 거쳐 지난해 창

립 기념식 자리에서

'Global Top 5 Power

EPC Leader'라 는

'KEPCO E&C 2020

New Vision'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전력기술은 국내 발전소에 대한 독점적 수주라는 소극적 전략을 과감히 탈피하고 해외시장 특히 원자력사업과 EPC 사업에 적극 진출함으로써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New Vision 선포 직후 조직과 인력, 제도 등을 정비하여 기반을 강화하고 사업개발 및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EPC사업과

해외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2020년 EPC 매출액은 3.9조원, 글로벌 매출액은 3.3조 원 가량이 확보됨으로써 총 매출액 5조원이라는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전기술의 기업 문화, 특화된 경쟁력

한국전력기술의 경쟁력은 한마디로 ‘기술’과 ‘사람’입니다. 우리 회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기술인, 한기인(韓技人)”. 한국전력기술의 경쟁력 그리고 기업문화를 잘 대변해주는 말로 생각됩니다.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최선을 다해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성실하게 업무에 적용하는 직원들의 모습에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야말로 기술과 사람을 최고 경쟁력으로 갖춘 ‘기술회사’란 이런 모습 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연하자면, 우리 회사의 직원들은 모두가 맡은 업무분야에서 국내외 최고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부응하여, 회사에서도 매년 매출액의 10% 이상을 기술개발과 교육훈련에 투자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직원 개개인의 노력과 회사의 지원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한국전력기술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현재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는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고 CEO로서의 경영철학

한국전력기술 사장으로 부임하기 이전 3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외 건설현장을 누비며 ‘시장은 변화의 연속이며 기업은 변화하지 않고는 생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때문에 경영에 있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즐기려 합니다. 물론 도전이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피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은 불문가지입니다. 우리 회사가 보유한 탄탄한 기술과 각 분야의 고급전문 인력에

더해 이 같은 도전정신이 더해져 한층 좋은 결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 회사의 경영이나 업무수행에 있어 '원칙에 충실하고 업무 목표 설정과 달성에 구성원 전체의 컨센서스를 존중하며, 결과는 내가 책임 진다'는 소신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한국전력기술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한전기술의 최우선 핵심 실천과제 및 비전

현재 회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난해 수주한 UAE 원전사업을 빈틈없이 수행하여 한국형 원전수출이 확대되는데 기여하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설계업무 중심의 기존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 설계, 구매, 건설 등 일괄서비스를 제공하는 EPC 분야로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인데, 이는 국제 건설시장에서 최근 '원스톱 서비스' 방식의 일괄발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적극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것은 기존 틀을 깨고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는 일이니 만큼 힘든 점도 있겠지만 우리의 기술력과 노하우라면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장기 경영계획 발표의 의미 및 성과 예측

지난 10월 1일 35주년 창립기념식에서 중장기 경영계획, 즉 Rolling Plan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해 발표된 '2020 New Vision' 경영전략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기술력 강화를 통한 원자력 EP(Engineering, Procurement)로의 단계적 확장전략을 수립하고, 플랜트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사업부문의 지역별 해외진출 차별화 전략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또한 안전보건 환경 관리체계 정립 및 EPC 역량제고를 단기 집중 전략과제로 설정하여 EPC 사업수행을 위한 실행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핵심내용입니다. 이렇듯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전략이 세워짐에 따라 New Vision 달성을 향한 우리 회사의 발걸음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RPS 시행, 기후변화 협약 등 규제에 대응한 친환경발전소 R&D성과 및 계획

한국전력기술은 발전사업 수행과정에서 한발 앞서 환경문제 해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원자력발전이 가장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화력발전 부분에서도 친환경발전소 설계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탈황·탈질기술인데, 한국전력기술은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발전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력기술이 개발한 한국형배연탈황설비(KEPAR)와 저온탈질촉매(KoNOx), Hybrid SCR 탈질시스템 등은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고 있어 해외수출 전망도 밝습니다. 이 외에도 이산화탄소 포집기술을 이용한 온실가스저감사업, 수질오염 방지설비 분야,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ESCO사업 부분에서도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사업화 측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형 원전의 미국 등 선진 해외원전시장 진출에 대한 전망(견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UAE 원전 수출을 계기로 정부가 해외시장에 원전수출을 확대하여 원전강국이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고, 관련 기업들도 해외시장 진출에 핵심역량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 덕분에 제2, 제3의 원전수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은 UAE 원전수출을 통해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제 원전시장은 기술적인 측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치밀한 준비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전력기술도 설계를 담당하는 한전 컨소시엄의 일원으로써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한국형 원전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김천시 이전에 따른 구체화된 계획

금년 1월에는 이전 인원, 부지 규모, 비용 등을 포함하는 지방이전계획(안)을, 6월에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안)을 잇달아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아 확정하고 그동안 잠시 지연되었던 이전 업무를 속개했습니다. 우선 정부로부터 지방이전계획을 승인받은 지 4개월 만인 지난 5월 김천혁신도시 내 회사 이전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어 '신사옥 건립 현상공모' 실사를 통해 9월 당선작을 선정하였고, 이번 달에는 설계 과정에 착수하였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의 김천 신사옥은 약 13개월의 설계 기간을 거쳐 2012년 초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인생철학, 좌우명, 전기인에 대한 당부의 말씀

‘盡人事 待天命’ 즉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 제 인생철학이자 좌우명입니다. 자신의 일에 열정을 다하고 모든 일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임한다면 100%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어 왔고, 지금도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설혹 100%에 못 미치는 결과라도 그것이 자신이 쏟은 열정과 노력에 따른 결과라면 후회는 남지 않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또한 그 경험은 다음의 100% 성과를 이루기 위한 밑바탕이 되고,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에너지가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가 가진 기술력이라면 대한민국이 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인들도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각자의 역할에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합니다. 그렇게 달리다보면 우리의 손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이끌어가는 미래와 머지않아 만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기술 불모지에서 일어나 30여년 만에 원전수출국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KEA